

제1회 「김우중 의료인상」

1. 제정 취지

- ▷ 1978년 김우중 설립자의 사재 50억원 출연에 의해 「대우재단」 설립 이후,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던 도서·오지 무의촌 지역을 대상으로 「병(의)원 사업」 개시
 - 신안(비금도/1979~2003년)·무주(설천면/1979~1999년)·진도(하조도/1979~2001년)·완도(노화도/1980~2007년)
- ▷ 대우재단은 4개 지역에서 의료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사업과 지역의 향토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병행 전개
 - 소득수준 향상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, 교통·통신의 발달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2000년 전후로 병(의)원 정부·민간에 이관하고, 종합 지역사업으로 기능 전환
- ▷ “무의촌지역에 선진사회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”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, “그늘진 곳에서 인술을 베풀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의료인 및 의료단체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”하고자 이 상을 제정

2. 제1회 「김우중 의료인상」 수상자 현황

구 분	주 요 내 용	비 고
김우중 의료인상 (상금 각 3,000만원)	①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(치과외) (1968년생 / 조선대 치대卒 / 1998~ 同병원 재직)	한센인과 평생 同苦同樂
	② 정우남 완도보건의료원 행복의원 의사(소아과) (1943년생 / 전남대 의대卒 / 2011~ 同의료원 재직)	1973~2005 미국 전문의 2005~2010 중국과기대 교수
	③ 박도순 무주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장(간호사) (1967년생 / 원광보건대卒 / 1989~ 보건지소 재직)	무주군에서 평생 간호활동
	④ 허은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간호조무사) (1969년생 / 포천실업고卒 / 1991~ 同병원 재직)	포천시에서 평생 간호조무활동
	○ 최해관 연세외과의원(무주군 설천면) 원장 (1940년생 / 연세대 의대卒 / 1978~2001 대우병원 재직)	재단 병원 설립·운영과 함께한 대표적 의료인
김우중 의료봉사상 (상금 1,000만원)	○ 한국여자의사회 (1972년 설립後 에이즈예방·의료봉사·장학사업 시행)	의협 추천 대표적 의료봉사단체